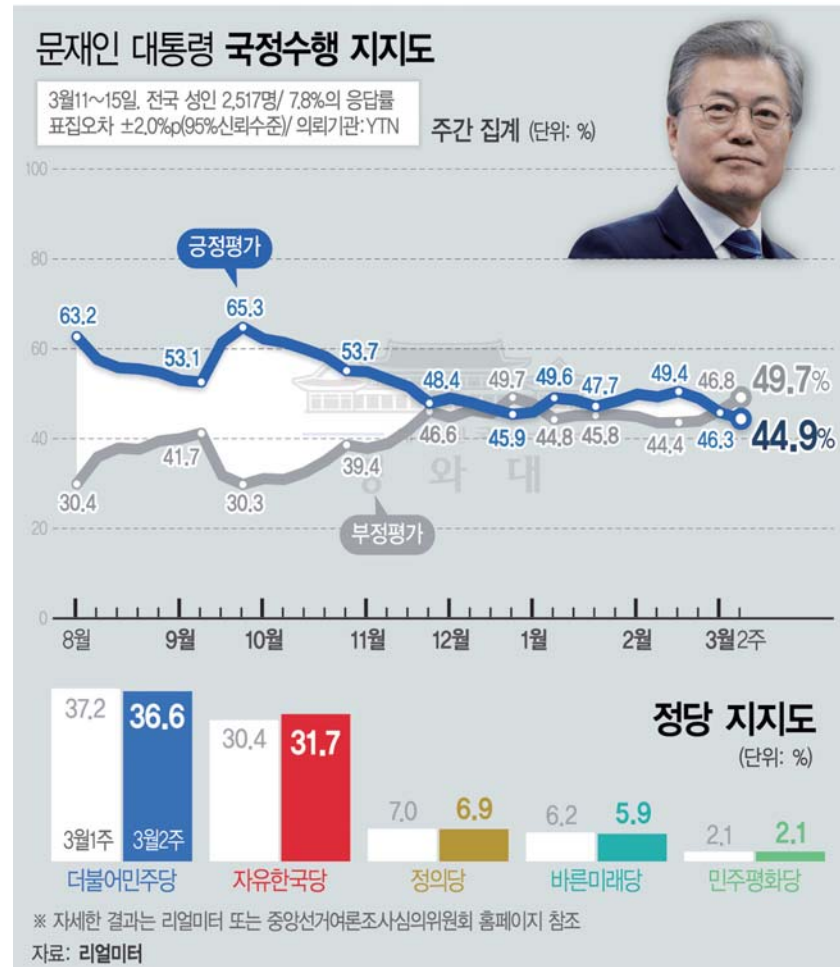


文대통령 · 민주당 지지율 '동반 최저'

'데드 크로스' 2주 연속...文대통령 44.9% · 민주당 36.6%

4주 연속 상승 한국당 31.7%...국정농단 사태 이후 최고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결국 기존 최저치 기록을 경신했다. 3주 연속 하락한 지지율은 44.9%까지 내려갔다. 기존 최저였던 45.9%보다 1%p 더 낮았다.

여론조사 전문가 리얼미터가 YTN의뢰로 지난 11~15일 나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7명을 상대로 조사해 18일 공개한 3월2주차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 오차 ±2%p·응답률 78%)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4.9%가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부정평가 비율은 54.1%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5.4%로 집계됐다. 긍정평가 비율이 44.9%까지 내려

간 것은 문 대통령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역대 최저치였던 지난해 12월4주차 주간집계(45.9%)보다 1%p 낮은 수치다. 12월4주차 주중 집계(43.8%)보다는 1.1%p 가량 높지만 주간집계로만 비교했을 때 역대 최저치에 해당한다.

리얼미터는 매주 월~수요일 주중 3일 간 조사한 결과(주중집계)를 목요일에 발표하고 목~금요일 이틀을 포함해 일주일 전체 합산(주간집계) 결과를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하고 있다.

지난 11~13일 집계한 3월1주차 주중집계에서 45%까지 떨어졌던 긍정평가 비율은 남은 14~15일 집계한 조사를 합산한 결과 최종 44.9%로 조사됐다.

부정평가 비율이 긍정평가 비율을 앞선 '데드 크로스' 현상도 2주 연속 이어졌다. 지난주 주간집계에서 오차범위(±2.0%p) 이내에 있었던 긍정·부정 간 격차(0.9%p)는 이번주 주간집계에서는 오차범위(±2.0%p) 밖인 4.8%p로 그 격차가 더 벌어졌다.

부정평가 비율이 긍정평가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도 주간집계 기준으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주중 집계 기준으로는 12월4주차 주중집계(격차 7.8%p·부정 51.6%·긍정 43.8%)에서 한 차례 부정평가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리얼미터는 "더러한 하락세에는 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 결정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장 복구 정황, 북한의 비핵화 협상 중단 가능성 발표 등 한반도 평화에 대한 부정적 소식이 이어진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5.6%p↓·42.3%)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다. 대구·경북(3.8%p↓·30.4%), 광주·전라(3.2%p↓·65.1%) 순으로 떨어졌다. 반면 대전·세종·충청(2.3%p↑·47.5%)과 부산·울산·경남(1.7%p↑·56.1%)은 오름세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40대(2.7%p↓·54.7%), 50대(2.7%p↓·39.7%), 60대 이상(1.7%p↓·33.4%)에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직업별로는 가정주부(10%p↓·33.5%)가 두 자릿수의 큰 낙폭을 보였다.

정당지지율의 경우 3주 연속 대통령 지지율과 궤를 같이한 더불어민주당이 11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주 같은 조사 대비 0.6%p 하락한 36.6%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4주차 주간집계(36.8%) 대비 0.2%p 떨어졌다.

자유한국당은 4주 연속 상승한 끝에 31.7%로 집계됐다. 국정농단 사태 본격화 직전인 2018년 10월2주차 주간집계(31.5%) 대비 0.2%p 올랐다. 약 2년 5개월 만에 주간집계 최고치를 경신했다.

리얼미터는 한국당의 상승 배경에 대해 "세 지도부에 대한 보수층, 중도층 일부의 기대감 상승과 이에 따른 지지층 결집의 구심력이 증가했다"며 "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 결정에 의한 반사이익 보수층 결집으로 이어진 나경원 원내대표의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 논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정의당 6.9%, 바른미래당 5.9%, 민주평화당 2.1% 순으로 각각 민주당과 한국당 뒤를 이었다. 무당층은 15.1%로 조사됐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野 "건보 적자 이유는 '文케어' 때문"

"건전성 방안 마련 시급"

건강보험 재정이 8년 만에 적자로 전환한 가운데 야당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케어 발표 이후 상급병원 출원 현상이 급속도로 나타나고 있다"며 "상급병원 MRI나 초음파가 급격히 되고 나서 대기자가 늘고 있다. 급한 환자가 입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강보험 적자가 복지

부에서 예상한 것보다 적더라도 후손들에게는 빛이 된다. 앞으로 재정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며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한다면 당장 건강보험 건전성 방안(미련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때 30조6000억원의 소요액으로 잡았다. 그중 20조원 정도는 재정에 이미 쌓여 있는 적립금으로 쓰기로 했다"며 "2022년 이후에도 적립금이 10조원 정도는 유지되는 수준에서 건강보험 재정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답했다.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참석하고 있다.

3당 원내대표 회동 결국 '빈손'

민중·바른파트트랙 추진...한국 "권력 이합적 선거법" 반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8일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상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지만 별다른 수확 없이 발길을 뿔었다.

홍영표 민주당, 나경원 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가졌지만 각 당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40여 분 만에 헤어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회동에서 홍 원내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에게 선거제 개혁안 등을 놓고 협상할 것을 제안했지만 나 원내대표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제도는 국회 선진화법 상 부득이 한 경우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선거법은 권력 이합적

이고 이런 것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는 것은 권력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날치기 패스트트랙에 대해 한국당은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며 "이 부분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정국 경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3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안에 대해 의면하고 본인 받고 룯만 챙기겠다는 비판 밖에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 추진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선거법은 현역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라 우리 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 문제는 각당이 내부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서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김은호 서울취재본부장

WP "트럼프, 하노이 회담서 북한 핵포기 의사 없다고 확신"

"플랜B도 준비하지 않은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말 하노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수미 테리 선임 연구원이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워싱턴 포스트(WP)에 따르면 테리 선임연구원은 백악관 관리가

전주 워싱턴에서 대북 외교정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가진 비공개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심경을 전했다

테리 연구원은 "백악관 관리가 얘기한 것은 모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점은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에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고 쉽사리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에 관한 이 같은 새로운 인식이 북한과 정상급 회담을 거부해온 과거 행정부에 맞서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이 없는 상태로 만난 전략에 의문을 던지게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하노이 북미회담에

배석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도 별도의 의회 대상 브리핑에서 북한이 창의적인 생각을 결여했고 "플랜B도 준비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힌 것으로 신문은 소개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미국이 영변의 일부 핵시설을 폐쇄하는 데가로 주요 대북제재를 풀어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북한은 제대로 된 대안이 없어 보였다"고 설명했다.

야호센터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사일로 340번안길 5

광산구 Together 광산구